

전통 · 기술 만남으로 새로운 음악 완성

전주문화재단, AI 국악 크로스오버 작곡 공모전 개최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락기)은 AI 국악 크로스오버 작곡 공모전 '다이브 루 퓨전: 창발(創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국악의 전통 어법에 AI 기반 음악생성 기술을 접목해 전통음악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대중과의 접점 확대를 목표로 기획됐다.

특히 AI를 활용한 국악 창작 또는 인간 작곡가와 AI의 협업을 통해 '국악 크로스오버' 장르의 새로운 음악을 완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르면 올해 공모전의 부제인 '창발(創發)'은 전통과 기술이라는 상반된 요소의 만남을 통해 예측 불가능한 새로운 음악이 창조되는 순간을 의미하며, 전통문화가 기술과 만나 진화해가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담았다.

공모는 오는 8월 13일까지 진행되며, 개인 또는 팀 단위로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출품작은 △AI 기술 활용도 △국악적 요소 반영 △작곡

및 편곡의 완성도 △독창성 및 창의성 등을 기준으로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된다.

수상작에는 총 1,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향후 '미래문화도시 전주'의 사업 추진 및 홍보, AI 뮤직비디오 제작 등 다양한 융합콘텐츠로 확장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1회 공모전에는 총 116개 곡이 출품됐으며, 작곡가 윤일상, 소리꾼 이희문 등 전문가 심사를 거쳐 4개 작품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최락기 대표이사는 "국악이라는 전통 자산이 AI라는 첨단 기술을 만나 미래문화콘텐츠로 진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며 "다양한 콘텐츠 생산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공모 신청서 및 기타 양식은 전주문화재단 누리집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미래문화기획팀(070-7711-3752)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AI 국악 크로스오버 작곡 공모전 포스터

‘연화장 세계와 단청, 석운 홍점석’ 상설테마전

국립무형유산원, 9월 7일까지 단청장 보유자 고 석운 홍점석 선생 작품관 조영

국가유산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박관용)은 7월 8일부터 오는 9월 7일까지 열린마루 1층 상설전시실에서 2025년 상설테마전 '연화장 세계와 단청, 석운 홍점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에서는 국가무형유산 단청장 보유자였던 고(故) 석운 홍점석 선생의 기증품을 중심으로, 단청의 장엄하고 화려한 색채를 통해 부처님의 세계를 구현하고자 한 그의 작품관을 확인할 수 있다.

전시는 '단청장 홍점석의 작품세계', '단청의 길', '연화장 세계를 열다'까지 총 3가지 주제로 구성됐다.

'단청장 홍점석의 작품세계'에서는 홍점석 선생이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작품전'에 출품했던 '청룡 · 백호 단청문양'을 비롯해 <대량초 단청문양>, <금단청 현무도>, <양산 통도사 단청 모사본> 등의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단청의 길'은 홍점석 선생이 평생을 단청 작업에 매진해 온 삶을 알아볼 수 있는 <보유자인정서>, <단청 작업 일람표>, <단청 작업복> 등 그의 기증품으로 구성됐다.

'연화장 세계를 열다'에서는 연화문 단청이 부처님의 세계를 장엄하는 최고의 수단이라는 그의 작품관이 표현된 <단청문양도병풍> 등을 만날 수 있다.

이 외에도 전국 사찰 건물들을 볼 수 있는 전면(파노라마) 영상도 마련, 그의 작품들을 생생하게 감상할 수 있다.

이번 전시는 사전예약 없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오랜 역사를 지닌 단청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 한평생 헌신한 그의 삶이 이번 전시로 다시 한 번 되새겨 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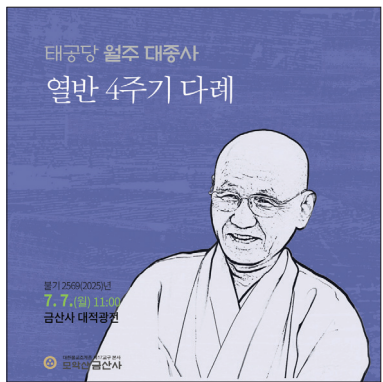


금산사, 태공당 월주 대종사 열반 4주기 추모 다례 봉행

금산사는 7일 오전 11시 대적광전에서 태공당 월주 대종사님의 열반 4주기 추모 다례를 봉행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태공당 월주 대종사는 1954년 법주사에서 금오스님을 은사로 모시고 출가했으며, 1962년 김계 금산사 주지로 부임한 후 1966년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조계종 총무원 교무부장, 총무부장, 중앙종회의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특히 1980년 4월 제17대 조계종 총무원장으로 추대됐으며, 12.12 사태와 5.17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군부의 지지 성명을 거부하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 현장을 찾아 희생자를 추모하는 등 불교의 사회적 역할 확대를 위해 노력했다. 총무원장직을 내려놓은 후에는 사단법인 지구촌공생회 대표 이사로 미얀마, 캄보디아,



몽골, 케냐 등 세계 곳곳을 누비며 자비 나눔

을 실천해 왔다. 또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할머니 '나눔의 집' 이사장, 공익 활동을 펼치는 함께일하는재단 이사장 등을 맡아 사회 활동에도 앞장섰다.

그 공로로 대한민국 국민훈장 무궁화장, 국민훈장 무궁화장, 캄보디아 국왕 훈장, 미얀마 최고 작위 '사따마 조디까다자', 조계종 포교대상, 만해대상, 민선상, 대원상 등을 수상했다.

금산사 태공문도회를 대표해 도영 스님은 "은사 스님의 삶은 보살도(普濟道)와 보현행원(普賢行願)을 실현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며 "큰스님께서 남긴 자취가 너무나 크고 무겁게 다가오지만, 위대한 스승의 가르침을 사회화운동을 통해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스님은 2021년 7월 22일 세수 87세, 법랍 68년으로 입적했다.

저서로는 보살사상(화갈문 문집), 보살정론, 인도성지순례기, 보살사상경구선집(편저), 도심집, 토끼를 거부할 등이 있다. /장은성 기자

전주문화재단, 한지학당 교육생 모집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락기)은 전통한지 참여교육 프로그램 '한지학당' 4기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신청은 오는 12일까지며, 교육은 31일부터 8주간 전주천년한지관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한지학당'은 단순한 체험을 넘어 전통 방식으로 직접 한지를 뜨고, 그 위에 전통 민화 '책가도(冊架圖)'속 오복제를 그려보는 실습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이다.

특히 전문 초지장의 단계별 지도를 통해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초부터 차근차근 익힐 수 있으며, 전통 한지 제작의 원리와 활용까지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최락기 대표이사는 "전통한지와 민화는 단순한 공예를 넘어 우리 조상들의 삶과 미감이 고스란히 담긴 문화유산"이라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분들이 손끝으로 전통을 느끼고, 창작의 기쁨까지 경험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국립전주박물관, 어린이 국악공연 '숲속음악대 덩따쿵' 개최

국립전주박물관(관장 박경도)이 오는 19일 오후 3시 박물관 강당에서 어린이 국악공연 '숲속음악대 덩따쿵'을 선보인다.

이에 따르면 숲속음악대 덩따쿵은 토끼, 꿩, 리, 곰돌이, 늑대, 여우로 구성된 숲속음악대 '덩따쿵'이 호랑이 생일잔치에 초대받아 멋진 국악 연주를 들려주는 국악체험극이다.

특히 공연 중 어린이들이 가아금 · 해금 · 거문고 · 아쟁 등 국악기를 직접 만져보고 함께 연주도 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국악에 대한 흥미와 친숙함을 한 층 더 높여줄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36개월 이상 관람 가능하며, 사전예약은 9일부터 시작된다.

국립전주박물관 관계자는 "어린이 국악체험극과 함께 가족들과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자세한 정보는 국립전주박물관 누리집 또는 전화(063-220-1009)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장은성 기자



남원시는 지난 5일, (사)한국미술협회 남원지부가 주관하고 남원시가 후원한 제39회 전국춘향미술대전 시상식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 <사진 제공=남원미술협회>

제39회 전국춘향미술대전 시상식 개최

280명 수상자 배출 · 7명 초대작가 신규 지정

남원시는 지난 5일, (사)한국미술협회 남원지부(지부장 김광길)가 주관하고 남원시가 후원한 제39회 전국춘향미술대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춘향미술대전은 39년의 전통을 바탕으로, 지역과 전국 미술인의 소통과 예술적 가치를 공유하는 장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올해 미술대전에는 전국 각지에서 총 507점의 작품이 출품되었으며, 공정한 심사를 통해 총 280명의 수상자가 배출되고, 7명의 초대작가가 신규 지정되어 지역 예술계의 저변 확대에도 기여했으며, 서양화 부문의 추향만 작가(바람이 남긴얼굴)가 종합대상을

수상해 남원시장상과 부상 300만 원을 수여받았다.

이날 시상식에는 김영태 남원시의회의장, 이성호 남원시 부시장, 이정진, 임종명 도의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김영태 남원시의회의장은 "이번 미술대전은 우리 남원이 지닌 문화적 깊이를 전국에 알리는 소중한 무대가 되었다"고 전했다.

한편 김광길 운영위원장은 "앞으로도 남원을 중심으로 전국 작가들과 함께 성장하는 문화예술 플랫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도립미술관은 지난 4일 전북미술사연구시리즈 '박민평:변주된풍경'의 공식 개막식을 갖고, 유족과의 기증 협약식을 진행했다.

박민평 유족, 전북도립미술관에 미술 자료 기증

전북도립미술관(관장 이애선)은 지난 4일 전북미술사연구시리즈 '박민평:변주된풍경'의 공식 개막식을 갖고, 유족과의 기증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 개막식은 당초 4월 전시 개막과 함께 열릴 예정이었으나 조기 대선으로 연기된 바 있으며, 이날 행사에는 박민평의 유족을 비롯해 지역 미술 대표 단체의 지회장들과 원로 작가 등 50여 명이 참석해 고인의 예술 세계를 함께 이해하고, 전북미술사의 흐름 속 그의 작업이 지닌 가치를 함께 되새겼다.

2부 행사로는 박민평 유족이 미술 자료를 전북도립미술관에 기증하는 협약식이 열렸다. 기증된 자료에는 전시 중인 작품 40점과 관련패생산품 도록, 사진 등 아카이브 자료가 포함돼 향후 전북미술사 연구와 전시로 폭넓게 활용될 예정이다.

유족 측 박용지 대표(와이지메디컬)는 "아버지의 작품이 지역 미술사에 오래도록 남아 후대에게 의미 있는 자료가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전시는 오는 13일까지 전북도립미술관 본관 1~4전시실에서 열린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프랑스 · 아프리카연구소, 시민 대상 인문강좌 진행

전북대학교 프랑스 · 아프리카연구소(소장 조화림 교수)가 인문강좌를 마련했다.

'시민과 함께, 아프리카를 읽다'라는 주제로 7월 9일부터 12월 1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전북대학교 박물관 2층 강당에서 격주 수요일마다 총 12회에 걸쳐 진행된다. 아프리카와 인문학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사전 신청 없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강좌는 전북대 프랑스 · 아프리카연구소가 참여 중인 인문사회 3.0(HK3.0) 사업의 일환으로, 학문과 사회의 연계 및 지식 공유를 통해 지역 인문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기획됐다.

9일 열리는 첫 강좌는 이주대학교 박민규 교수가 '꼭 알아두어야 할 노예무역의 진실'을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조화림 연구소장은 "일반 시민과 지역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문 프로그램을 통해 아프리카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